

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추진계획(안)

1. 추진배경

- '15.1.27, 「IT·금융 융합 지원방안」 발표 이후 핀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애로사항은 대폭 개선되었으나,
 - * 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폐지 : 다양한 간편결제·이체 서비스 출시 유도('15.3월)
 - ②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: 모바일 결제 활성화('15.4월)
 - ③ 다양한 비대면확인 방식 국내 허용('15.5월)
 - ④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('15.6월)
- 여전히 많은 핀테크기업들은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핀테크 비즈니스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
 - (개발 과정) 핀테크 기업이 개별적으로 금융회사와 협약을 맺어 금융데이터·서비스에 접근, 활용하는 것이 어려움
 - (시험 과정)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를 금융전산망에 연결하여 Test하려 할 때에도 금융기관은 보안 및 안정성 문제 등 우려
- 규제개선을 넘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
 - 이를 위해, 금융권과 핀테크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권 공동*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

※ [참 고] 국내·외 사례

- ▶ (해외) 가장 앞서있는 영국의 경우 '14년부터 재무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API로 전환하는 정책*을 수립하여 추진 중

* '14.12. 『Data Sharing and Open Data for Banks』

- 그러나 각 금융기관별 오픈 플랫폼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후 뒤늦게 표준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'17년말경 구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

- ▶ (국내) 최근 일부 은행(농협, IBK 등)은 가지고 있던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을 핀테크 기업에 공개하는 Open Platform 구축 진행

2. 오픈 플랫폼이란?

□ 핀테크 오픈 플랫폼이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**통로·장(場)**으로서

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**표준화된 API*** 형태로 제공하는 **Open API**와

* **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** : 특별한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도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된 **프로그램 명령어 덩어리**

② 개발된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**Test-bed**를 더한 개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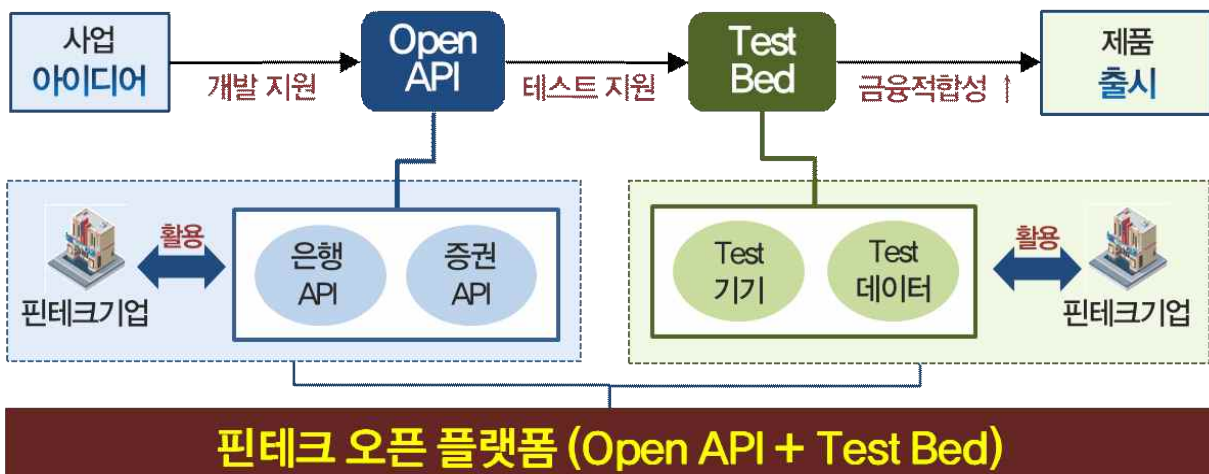
⇒ 시스템 구축 후에는, 잔액조회 API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새롭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 가능

□ 이번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에는 17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,

○ 계획대로 금년 내 Test-Bed 구축,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공동 Open API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시 세계 최초

⇒ 이는 우리나라가 핀테크 분야 후발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할 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

< 핀테크 오픈 플랫폼(Open Platform) 개념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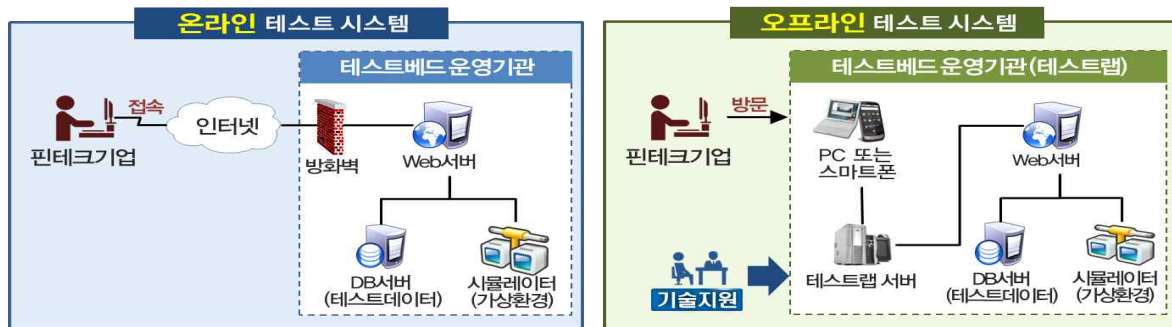
3. 추진계획(안)

□ 7월 中 (가칭) 금융권 공동 Open Platform 구축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켜 Test-bed와 Open API 구축을 Two-track으로 추진

① (Test-bed) 금융공동망을 가진 금융결제원과 증권망을 가진 코스콤을 중심으로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*된 Test-bed 구축·운영('15년下)

*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Test-bed 및 Open API에 대한 사용신청 접수,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연계된 오픈플랫폼 포탈 개설 예정

- 금융결제원, 코스콤이 테스트 등의 기술지원, 금융보안원이 보안과 관련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



< On/Off-line 테스트베드 구성도 >

② (Open API)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*된 web 기반의 Open API 구축

- 업권별 실무협의체에서 서비스 개방 범위, 표준화 방법 등 금융권 공동 Open API 구축 세부방안을 마련·발표 ('15년下)

- 세부방안에 따라 각 금융회사의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던 송금·잔액조회 기능 등을 Open API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포탈 개설 ('16년上)

은행권 API * 결제원 주관 구축
송금, 잔액조회 등

금투업 API * 코스콤 주관 구축
시세조회, 분석 등

□ Open API와 Test-bed는 가상 데이터와 실제 전산망과 분리된 가상환경(Simulator)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등 보안상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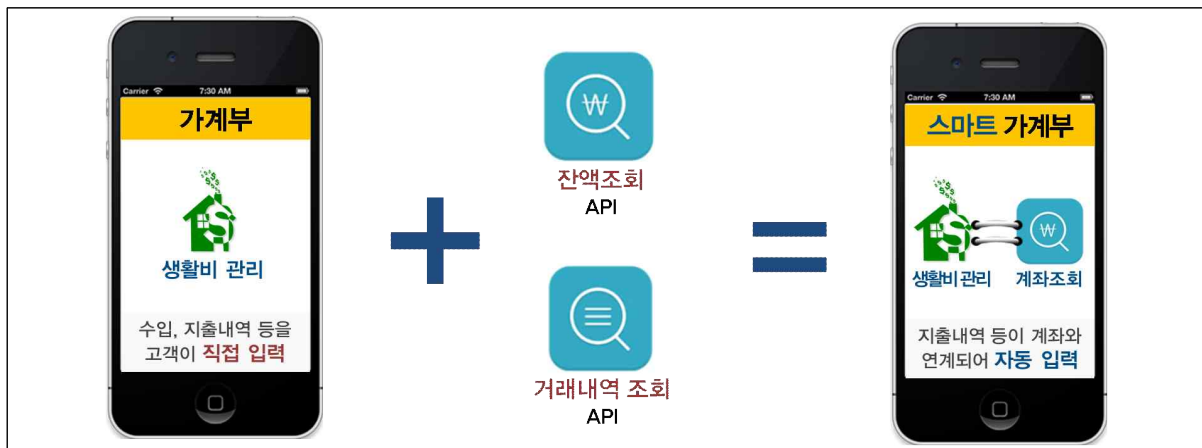
4. 기대 효과

- 전 세계 최초로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(Open Platform)을 구축하여 핀테크 생태계 조성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
 -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영국도 이를 추진 중에 있으나, '17년말경에나 금융권 공동 Open API 구축작업 완료 예정
-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무궁무진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
 - 예를 들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공개할 경우 핀테크 기업이 이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임
 - 즉, 기존에는 모든 핀테크 회사가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무늬를 그려서 완성하는 전 공정을 수행했다고 하면,
 - 이제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초별구이된 도자기가 제공됨에 따라 각각의 핀테크 회사는 그 위에 각자의 무늬를 그림으로써 전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음
- 이처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이 쉬워지고, 테스트 등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
 -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금융 분야에 진출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
 -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신규 고객과 만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
 -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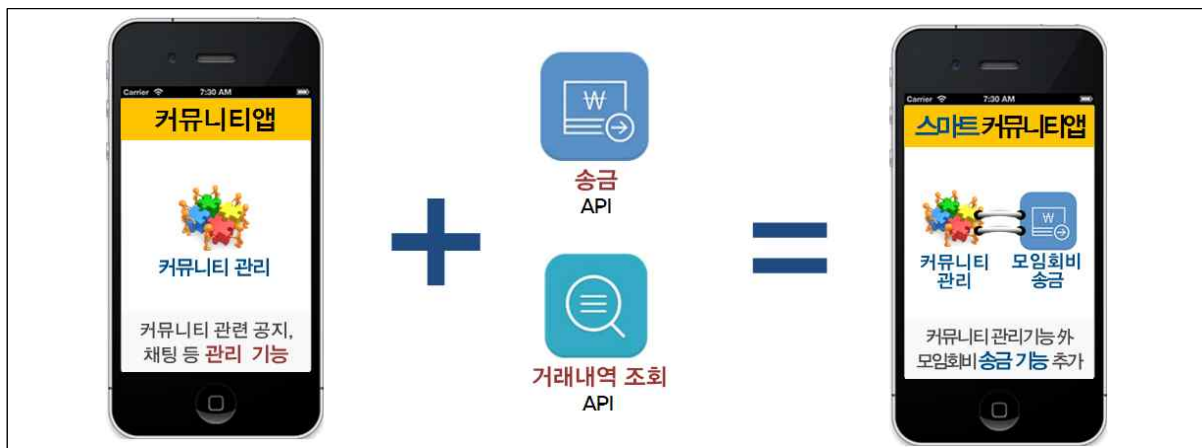
별첨

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(예시)

1] 가계부 앱 (생활비관리와 계좌조회 기능을 연계)



2] 커뮤니티 앱 (송금기능을 추가하여 모임회비 수납 지원)



3] 자산관리 앱 (1개 → 다수 금융회사 통합 자산관리 지원)

